

대학생의 진로상담프로그램 실시전후의 진로성숙도 차이검증

권은경*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Career counseling of University Students before and after Differences in career maturity verification

Eun-Kyoung Kwon*
Dept. of Education, Kyung 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진로 성숙도차이 검증을 통하여 향후 대학생들의 진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대학의 진로 지도의 방향 설정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검증결과 우선 대학생 진로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이 적용받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향상되었다. 진로태도성숙 변화량의 집단간 T-test 결과는 진로태도성숙 전체에 대하여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요인으로서는 확신성과 독립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진로상담프로그램, 진로성숙도, 진로지도, 진로상담, 진로발달

Abstract In this study, career counseling collegiate career maturity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program implementation through proven collegiate career counseling program development and future of the University Career guidance and on the basis of the direction is set. Verification results first college career counseling program has not been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were improved career attitude maturity level.

Key Words : Career counseling, career maturity, career guidance, career counseling, career development

1. 서론

대학생의 구체적인 진로발달 요소로는 심화된 자기 이해와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다양하고 급변하는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해, 직업과 사회·경제적인 관계의 이해가 있다([6],[3],[14]).

미래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준비 해야하는 진로과업

으로는 효과적인 진로정보의 탐색·평가·활용, 의사결정 기술 및 진로목표의 설정, 목표에 적합한 진로계획 수립·실행 등이 있다([4],[12],[11]).

진로문제의 해결은 개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삶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자기성장을 촉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진로문제는 개인차원에서 가장 보편적인 상담문제이고, 적응의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Received 4 June 2013, Revised 28 June 2013
Accepted 20 July 2013
Corresponding Author: Eun-Kyoung Kwon(KyungNam University)
E-Mail : cantatas@daum.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개인적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의 대학 교육은 진리탐구에 목적을 둔 소수 정예자에 대한 상아탑적 성격의 전문교육이라기보다는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 대중의 직업교육적 성격이 강하므로 졸업 후의 진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역시, 적성검사를 통해 능력과 흥미를 확인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권유하는데 그치고 있다. 능력이나 관심사 위주로 진로상담을 해 오던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는 가치에 따른 목적 설정과 의미 있는 정체감 확립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진로 성숙도차이 검증을 통하여 향후 대학생들의 진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대학의 진로 지도의 방향 설정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진로성숙도의 개념

진로성숙도는 개인이 진로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시 자신의 능력과 현실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진로성숙의 개념은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Carter(1940)와 Strong(1943)의 청소년과 성인들의 흥미유형과 성숙수준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로부터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여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8].

Super(1953)는 진로성숙도란 곧 진로의 발달수준을 뜻하는 것으로 직업을 알아보고 준비하고 자리잡고 조사하고 직업에서 물러날 때까지의 발달과업에 대해 대처해 나가는 태도적·인지적 준비도라고 하였다. 또 생애단계(life stage)의 개념이 진로발달의 개념에 영향을 주었고 진로발달의 개념은 진로성숙도의 개념을 산출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진로 성숙도를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 즉 탐색기로부터 쇠퇴기까지의 발달단계 중에서 개인이 이루어야 할 직업적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로 보았다. 개인이 현재 보이고 있는 진로행동이 그 개인연령층에게 기대되는 진로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의해 진로성숙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일치도가 높을수

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이라고 하였다[13].

반면에 Crites(1978)는 진로성숙도를 개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직업을 선택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수준이며 그 선택을 현실적이고 독자적이며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 개인이 도달한 발달정도와 직업적 준비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즉, 개인의 진로성숙수준에 따라 삶의 방향이 규정되고 진로성숙도는 직업 선택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애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내적 성숙수준으로 보았다[2].

김현옥(1989)은 진로성숙도를 진로의식, 탐색, 의사결정에서의 발전적 변화의 개념으로서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자아와 환경을 인식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적응해 가는 준비도라고 정의하고 있다[7].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진로성숙도는 개인이 자신의 성격, 흥미, 적성 등의 이해와 일과 자아 및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한 수준 또는 발달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2 진로성숙도 관련연구

이기학(1997)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직업적 성숙정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에서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9]. 또한 37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서로 상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10]. 이은경(2001) 역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 정도인 진로성숙을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5].

김봉환(1997)은 사범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준거로 진로발달 상태를 유형화하여 네 가지 유형을 분류했다. 그 중 진로발달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A유형은 진로결정수준도 높으며 진로준비행동도 매우 활발한 타입으로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도 네 유형중 가장 높았으며 특성 불안은 네 유형중 가장 낮았다. 또한 D유형은 진로결정수준과 행동수준이 모두 빈약하여 뚜렷한 진로방향도 모르고, 진로준비행동이라는 실제적인 측면도 매우 빈약한 미성숙한 유형으로 진로성숙도 뿐만 아니라 진로정체감 점수 역시 가장 낮아

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태도의 확립이 미약하며, 특성불안의 수준은 네 유형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1]. 이것은 진로성숙 이라는 변인이 개인의 진로발달수준을 알아보는 데 아주 유용한 변인임을 다시 확인한 연구결과이고, 본 연구에서도 진로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변인으로 진로성숙변인을 채택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차이 검증 실시하고자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진로성숙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전후의 결정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전후의 목적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전후의 확신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5.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전후의 준비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6.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전후의 독립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대상 및 동질성검증

〈Table 1〉 Corresponding sample statistics

		N	Mean	S.D	t	p
decisiveness	E.G	17	3.33	0.82	0.495	0.624
	C.G	17	3.10	0.65		
goal orientation	E.G	17	3.82	0.53	0.929	0.360
	C.G	17	3.47	0.50		
confidence	E.G	17	3.21	0.53	1.963	0.058
	C.G	17	3.47	0.47		
preparation	E.G	17	4.16	0.48	2.106	0.043
	C.G	17	3.86	0.34		
independence	E.G	17	3.84	0.38	0.998	0.326
	C.G	17	3.69	0.44		
Total	E.G	17	3.67	0.42	1.163	0.254
	C.G	17	3.52	0.34		

E.G : Experimental group, C.G : Control group.

대학생진로상담프로그램의 실시와 차이검증을 위해 창원시에 소재한 K대학교의 대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7명씩 무선 배치하

였다. 그 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차이를 검증하기에 앞서 프로그램의 시행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심리 변인이 동질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준비성의 경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위해서는 큰 차이로 보기 어렵다.

3.2 측정도구

진로성숙을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도 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진로태도성숙도 검사는 5개 하위요인의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하위요인은 결정성(decisiveness)으로, 이는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성 정도를 나타내며,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둘째, 목적성(goal orientation)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지향성에 대한 것으로 사회, 경제적 욕구보다는 자아실현, 사회적 봉사, 대인관계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더 추구하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셋째, 확신성(confidence)은 진로선택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정도를 나타낸다. 넷째, 준비성(preparation)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정도, 그리고 진로에 대한 관심 정도를 나타내며,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능력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독립성(independence)은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가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Table 2〉 Scale

	Count	Number	Cronbach's
decisiveness	9	1,6*,11,16*,26*,31,36,41*,45*	.88
goal orientation	8	2*,7*,12,17*,22*,27*,32*,37*	.75
confidence	11	3*,8*,13,18*,23,28*,33,38*,42,46*	.75
preparation	9	4,9,14*,19,24,29,34,39,43,47	.76
independence	10	5*,10*,15*,20,21*,25*,30,35,40,44*	.75
Total	47	1-47	

주. *은 역채점 문항임

3.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진로상담프로그램 전후의 진로성숙도 차이 검증을 위한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사전검사,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O1 X O2
O3 O4

O₁ , O₃ : 사전 검사

O₂ , O₄ : 사후 검사

X : 실험처치(대학생 진로상담프로그램)

3.3.1 사전검사

본 연구의 차이검증을 위한 자료를 얻고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진로태도성숙도검사를 프로그램 1 회기를 진행하기 전에 실시하였다.

3.3.2 프로그램 실시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을 17명으로 구성된 단일집단으로 운영하였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시행은 2012년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회기당 120분간 주 3회 4주에 걸쳐 총 10회기 과정으로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3.3.3 사후검사

본 연구의 차이검증을 위한 자료를 얻고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검사를 프로그램 10회기를 모두 진행 한 후 실시하였다.

3.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Windows용)을 이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심리적인 변인 측정 결과의 차이 및 변화를 알아보았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대학생진로상담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점수 변화를 t-test를 실시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4. 실증분석

4.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의 검증을 위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진로태도성숙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이 수행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점수의 변화와 변량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Hypothesis of the t-test results of 1

	N	Before		After		Change	t	p
		M	S.D	M	S.D			
E.G	17	3.67	0.42	3.95	0.45	0.28	2.98	0.006
C.G	17	3.52	0.34	3.53	0.37	0.01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의 변화는 사전(M=3.67)에 비해 사후(M=3.95)로서 0.28점 향상되었으며, 통제집단은 사전(M=3.52)과 사후(M=3.53)로서 0.01점 향상되었다. 또한 변화량의 집단간 t-test 결과, 사전 사후의 변화량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t점수가 2.98, p값은 0.006로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4.1.1 가설 2의 검증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본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진로태도성숙도의 결정성의 변화 및 변화량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 Hypothesis of the t-test results of 2

	N	Before		After		Change	t	p
		M	S.D	M	S.D			
E.G	17	3.33	0.82	3.63	0.94	0.29	1.82	0.07
C.G	17	3.10	0.65	3.10	0.81	0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의 결정성 변화는 사전

(M=3.33)에 비해 사후(M=3.63)로서 0.29점 향상되었으며, 통제집단은 사전(M=3.10)과 사후(M=3.10)로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변화량의 집단간 t-test 결과, t값은 1.82, p값은 0.07로서 사전사후의 변화량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4.1.2 가설 3의 검증

가설 3의 검증을 위해 본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진로태도성숙도의 목적성의 변화 및 변화량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 Hypothesis of the t-test results of 3

N	Before		After		Change	t	p
	M	S.D	M	S.D			
E.G	17	3.82	0.53	3.98	0.45	0.16	1.65 0.11
C.G	17	3.47	0.50	3.39	0.72	-0.08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의 목적성 변화는 사전(M=3.82)에 비해 사후(M=3.98)로서 0.16점 향상되었으며, 통제집단은 사전(M=3.47)과 사후(M=3.39)로서 0.08점 감소되었다. 변화량의 집단간 t-test 결과, 사전사후의 변화량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4.1.3 가설 4의 검증

가설 4의 검증을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진로태도성숙도의 확신성의 변화 및 변화량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 Hypothesis of the t-test results of 4

N	Before		After		Change	t	p
	M	S.D	M	S.D			
E.G	17	3.21	0.53	3.81	0.55	0.60	3.90 0.001
C.G	17	3.47	0.47	3.55	0.40	0.08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의 확신성 변화는 사전(M=3.21)에 비해 사후(M=3.81)로서 0.60점 향상되었으며, 통제집단은 사전(M=3.47)과 사후(M=3.55)로서 0.08점 향상되었다. 또한 변화량의 집단간 t-test 결과, 사전사후의 변화량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t점수가 3.90, p값은 0.001로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4.1.4 가설 5의 검증

가설 5의 검증을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진로태도성숙도의 준비성의 변화 및 변화량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7> Hypothesis of the t-test results of 5

N	Before		After		Change	t	p
	M	S.D	M	S.D			
E.G	17	4.16	0.48	4.08	0.47	-0.09	-0.10 0.92
C.G	17	3.86	0.34	3.79	0.46	-0.07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의 준비성 변화는 사전(M=4.16)에 비해 사후(M=4.08)로서 0.09점 감소하였으며, 통제집단은 사전(M=3.86)과 사후(M=3.79)로서 0.07점 감소하였다. 변화량의 집단간 t-test 결과, 사전사후의 변화량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는 기각되었다.

4.1.5 가설 6의 검증

가설 6의 검증을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진로태도성숙도의 독립성의 변화 및 변화량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8> Hypothesis of the t-test results of 6

N	Before		After		Change	t	p
	M	S.D	M	S.D			
E.G	17	3.84	0.38	4.26	0.51	0.42	2.80 0.009
C.G	17	3.69	0.44	3.83	0.47	0.14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의 독립성 변화는 사전(M=3.84)에 비해 사후(M=4.26)로서 0.42점 향상되었으며, 통제집단은 사전(M=3.69)과 사후(M=3.83)로서 0.14점 향상되었다. 그리고 변화량의 집단간 t-test 결과, 사전사후의 변화량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t점수가 3.80, p값은 0.009로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6은 채택되었다.

5. 결론

검증결과 우선 대학생 진로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이 적용받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향상되었다. 진로태도성숙 변화량의 집단간 T-test 결과는 진로태도성숙 전체에 대하여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요인으로서는 확신성과 독립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정성, 목적성, 준비성에서는 사전, 사후 검사의 평균비교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변화량의 차이를 보였지만, 변화량의 집단간 t-test 결과, 사전사후의 변화량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상담프로그램의 실시 전후의 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하여 지속적인 진로지도를 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와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진로상담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행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B. H. Kim, The Effects of Group Career Counseling Program on the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Wome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8,

pp. 1453-1466, 1997.
 [2] Crites, J. O..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ies and research handbook. Monterey, CA: McGraw-Hill, 1979.
 [3] Dayton, C. W.. The young person's job search: Insights from a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pp. 321-333, 1981.
 [4]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Australian blueprint for career development.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2003.
 [5] E. K.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Ph.D. dissertation, Ehwa womens University, 2001.
 [6] E. Yim, I. K. Kim, Career guidance & school-to-work transition. Seou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06.
 [7] H. O.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Maturity Levels of Korean Adolescents and the Related Variables, Ph.D.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1989.
 [8] H. Y. Lee, Counseling for Career Maturity, Seoul: Hakgisa, 2002.
 [9] K. H. Lee, H. J. Lee.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 pp. 127-136, 2000.
 [10] K.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1997.
 [11] National Life/Work center. Blueprint for life/work design. National Life/Work Center, 2000.
 [12] National Occupation Coordinating Committee (NOICC).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 K-adult handbook. National Occupation Coordinating Committee, 1996.
 [13] Super, D. E..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pp. 185-190, 1953.

[14] Super, D. E.. The psychology of careers. NY: Harper & Row, 1957.

권 은 경(Kwon Eun-Kyoung)

[정회원]



- 2000년 2월 : 경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3년 2월 : 경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06년 9월~현재 :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 2006년 9월~현재 : 창원문성대 유아교육과 강사

· 관심분야 : 교육심리, 상담

· E-Mail : cantatas@daum.net